

## 祝 辭

朴 東 鎮

(國土統一院長官)

“北韓과 中共의 開放化”라는 重要한 主題아래 開催되는 第六次 韓中學  
術會議에서 韓中 兩國의 著名하신 碩學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하며, 今番會議를 開催하기 爲해서 많은 勞苦를 아끼지 않  
으신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와 自由中國의 國立政治大學 國際關係研究  
中心의 關係者 여러분에게 먼저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大韓民國과 中華民國은, 오늘날, 다 같이 民族과 國土分斷의 苦痛을 겪  
으며, 再統一의 實現을 爲한 努力을 國家的 最大課題로 삼고 있다는 事實  
以外에도, 같은 東北亞細亞圈에 位置하면서, 先進國으로의 跳躍을 爲한 發  
展과 繁榮의 길을 摸索해야 하는 또 하나의 當面한 共通課題를 안고 있음  
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兩國이, 이와 같은 學術會議를 通하여, 서로 意見을 交  
換하고, 協力을 圖謀하는 일은, 매우 有益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번 會議가 當面한 우리의 關心事인 共產圈에서의 開放化問題를, 北韓과  
中共을 中心으로, 比較分析하고 展望을 해보기로 한 것은, 그 意義가 매  
우 크다고 하겠읍니다.

1917年 “러시아”의 “볼셰비키” 革命에 依한 共產主義政權의 樹立을 起  
點으로 하여, 國際社會에 登場한 共產主義勢力은, 그 後 國際政治社會에  
서 하나의 霸權을 掌握하기 爲해, 世界의 脆弱地域 特히 「아시아」, 「아프  
리카」等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後進地域을 對象으로 共產主義 勢力을 擴

張해 왔습니다.

그러한 餘波의 結果로, 韓半島北部와 中國大陸에서도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標榜하는 共產主義政權이 樹立되게 되었으며, 이들 두 共產主義政權은 韓半島全體는 勿論이고, 나아가서 東北亞 全域의 共產革命을 爲해, 教條的 路線을 堅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高度로 産業化된 20世紀 後半에 들어오면서, 共產主義政權들은 그들 特有의 全體主義的 閉鎖體制와, 이로 인한 後進性으로 말미암아, 自體의 앞날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方向으로 變化의 突破口를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即, 難積한 社會問題의 解決, 鈍화된 經濟成長의 回生, 그리고, 落後된 住民生活 水準의 向上을 爲해 이제 共產圈은 所謂 “自力更生的” 我執에서 脫皮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그들 스스로 敵對視해온 西方世界로부터의 資本과 技術의 協力이 自存을 爲한 必要條件이라는 難局에 到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共產主義 國家에서의 “開放化”이며, 이 물결은 東歐에서 中國大陸으로, 이제 北韓에 까지 그 影響을 미치고 있습니다.

中共에서의 一連의 實用主義 路線에 依한 市場經濟 方式의 導入과, 對西方圈과의 經濟協力 等 開放化 政策으로의 轉換이 갖는 意味와 그 過程, 그리고 展望 等에 對한 具體的 分析은, 今番 會議를 통해서 보다 明白하게 糾明되리라고 봅니다만, 中共의 實用主義 路線으로의 轉換과 開放化政策의 推進, 美·中共, 日·中共間의 協力關係 乃至는 關係緊密化가 東北亞 全體는 勿論이고 韓半島 특히 北韓에 미친 影響은 相當히 큰 것으로 評價됩니다.

2000年을 15年 남겨둔 이 時點에서, 우리는 共產主義 國家에서의 開放化의 움직임을 통해서, 21世紀의 問題가 19世紀式 教條的 共產主義로서는 解決이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再確認하고 있습니다. 即, 自由民主主義를 基本으로 하는 資本主義體制가, 共產主義體制보다 훨씬 더 나은 體制라는 것을, 共產主義 國家들 自體의 內的變化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오늘날의 現實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本人은 여기서, 共產主義로서는 오늘날의 共產主義 國家들이 當面하고 있는 社會經濟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고 判定한 中共 人民日報의 昨年末의 一連의 論說과, 그리고 특히 資本主義의 急速한 滅亡과 共產主義의 世界支配는 根據없는 幻想主義라고 한 最近 公開된 蘇聯 共產黨의 새 理念 靑寫眞을 다시 한번 想起하는 바입니다.

韓中兩國은 다같이 共產主義와의 對決이라는 共通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共產主義와의 對決에는 共產主義를 全적으로 拒否하는 方法과 共產主義者와의 對話를 通해 說得하는 方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方法을 取하든간에 長期的 眼目에서 볼때, 民主主義가 窮極의으로 모든 人類의 心性을 掌握하게 되리라는 것이, 世界의 흐름이라고 確信합니다.

우리 政府는, 이러한 確信下에서 우리 民族의 宿願인 自由, 民主, 民族, 福祉의 理念이 實現되는 統一國家의 建設을 爲해, 北韓 共產集團과의 對話의 幅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러한 基本立場에 따라 現在 南北韓間에는 昨年 9月以後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南北國會會談의 豫備接觸, 體育會談 등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南北對話를 推進하는 것은 北韓으로 하여금 開放化를 促進케 하고 나아가서는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통해 戰爭再發을 防止하고 平和體制를 構築코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韓中學術會議가 所期の 成果를 거두게 되고 또 이를 契機로 韓中兩國學者들 間의 學問的 交流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